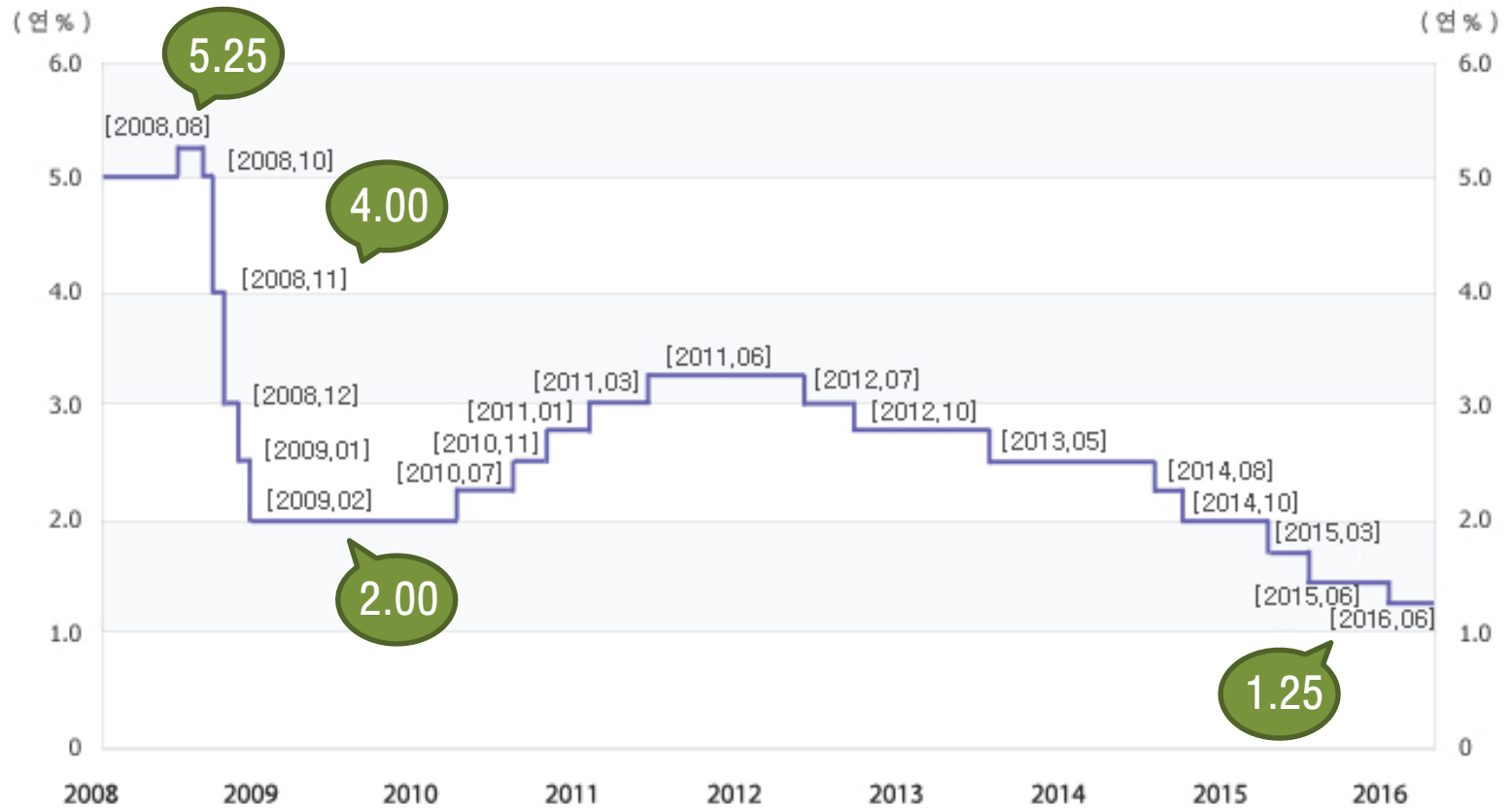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2016.10.04.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0.7	6.5	3.7	2.3	2.9

[자료] 한국은행

2014	2015	2016 1/4	2016 2/4
3.3	2.6	0.5	0.8

(전년동기대비, %)

기간	물가안정목표	근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8	9±1%	5.9	7.5
1999	3±1%	0.3	0.8
2000	2.5±1%	1.9	2.3
2001	3±1%	3.6	4.1
2002	3±1%	3.0	2.8
2003	3±1%	3.1	3.5
2004	2.5~3.5%	2.9	3.6
2005		2.3	2.8
2006		1.8	2.2
2007	3±0.5%	2.3	2.5
2008		4.3	4.7
2009		3.6	2.8
2010	3±1%	1.8	3.0
2011		3.2	4.0
2012		1.6	2.2
2013	2.5~3.5%	1.6	1.3
2014		2.0	1.3
2015		2.2	0.7
2016	2.0%	1.6	0.8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의]

- 1) '00~'06년은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지수 기준,
그외 기간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 2) '16년은 1~8월 중 평균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저성장.저물가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

출처: 2016.2.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NEWSIS

[일문일답]이주열 "금리인하 기대효과 불확실... 신중하게 판단해야"

기사입력 2016-02-16 14:35 기사원문 공감해요



사실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대응정책**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의 저성장, 저물가의 근본 원인은 누구라도 다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

【서울=뉴시스】 이근홍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추가 금리인하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인 완화정책이 강도도 더해지고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 분야에서의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정책 기안회 확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상향시킨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기준금리 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

출처: 2016.1.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세계일보 [일문일답] 이주열 "3% 경제전망치, 낙관적인 거 아냐"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6-01-14 16:00 | 최종수정 2016-01-14 16:58

기사원문 > 공감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적이 아니다라는 평을 내놨다.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

다.

▲ 이주열 한은 총재

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올해

이주열 총재는 이번 전망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소비자의 증진도 이번 전망에 감안을 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6%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강하게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수준인 2%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

단년도에 달성하는 목표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라는 점을 거듭 말씀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단기에 목표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릴 것이라고 하는, 물가를 그 수준에 단기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2014.4.1. 이주열 총재 취임사



“과다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현상 등이 앞으로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의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장세 회복 지원, 그리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014.8.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2.50 → 2.25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의 금융·경제상황 그리고 수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근거로서는 한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도 경제를 다시 전망해 본 결과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면서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시기가 종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향후의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보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서 앞으로의 성장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14.1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2.25 → 2.00

민간소비증감률 추이

(실질, 계절조정, %, %p)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16 1/4	`16 2/4
성장률	3.7	2.3	2.9	3.3	2.6	0.5	0.8
소비증가	2.9	1.9	1.9	1.7	2.2	-0.2	1.0

자료: 한국은행

국내 총 투자율 추이

(%, %p)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2016 2/4
성장률	3.7	2.3	2.9	3.3	2.6	0.5	0.8
투자증가	0.8	-2.1	-1.8	0.3	-0.8	-1.3	1.3

자료: 한국은행

일부 위원, 최근 몇 년 전부터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달 금리인하,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2016.7.14. 금통위 회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보고)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2016.8.11. 금통위 회의

- 가계부채 증가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지만(유동성경로)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위축(채무부담경로)
-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큰 한계가계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우려

한국은행 서면제출(16.10.3.)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잔액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2016 2/4
가계신용(A+B)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1,019	1,085.3	1,203.1	1,223.7	1,257.3
증감액	58.3	58.1	52.5	67.2	73.0	47.6	55.2	66.3	117.8	20.6	33.6
(증감률)	(9.6)	(8.7)	(7.3)	(8.7)	(8.7)	(5.2)	(5.7)	(6.5)	(10.9)	(11.4)	(11.1)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친 영향

	2007~10	2011~14
전체 효과(A+B)	0.19	-0.2
유동성 효과(A)	0.30	0.5
채무상환 효과(B)	-0.12	-0.7

자료: 가계부채 1% 증가에 따른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기준(한국은행 2016, 보고자료)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4
평균소비성향	76.7	74.1	73.4	72.9	71.9	70.9

한국의 가계저축률 추이

자료: OECD

	2011	2012	2013	2014	2015(추정)	2016(추정)
가계저축률(%)	3.86	3.9	5.6	7.18	8.82	8.66

국고채 수익률(5년) 추이

자료: 증권업협회, '11~'15 기간 중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30
연리(%)	3.90	3.24	3.00	2.84	1.97	1.25
전기대비(%p)	-0.41	-0.66	-0.24	-0.16	-0.86	-0.07

2015.12. 금융안정보고서 99p

자료: 한국은행



④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영업 이익이 증가하여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저시 금융경제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업체 수 기준)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0%(2,642개)로 2.4%포인트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조선, 운수, 철강, 건설 업종에서 동 비중이 큰 폭 상승하였다. 2014년 말 현재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의 7.8%(239조원), 부채의 14.1%(차입금 및 상거래상용, 228조원), 종사자 수의 5.4%(19.1만명) 수준이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실물경제 기여도는 낮으나 부채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하였는데, 이는 기업 신용평가 및 자산건전성 관리의 관대와 동 금융기관의 회수유예대출 관행(forbearance lending)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한편 저금리 기조도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만성적 한계기업의 차입의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자 기업* 비중
 만성적 한계기업 예산의 자산건전성 분류*

분류	비율 (%)
적자 기업	22.9%
정상	77.1%

분류	비율 (%)
적자	32.9%
정상	67.1%

만성적 한계기업이 외부차입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의 회수유예대출 관행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 및 자산건전성 관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2014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기업
단위: 천억 원

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만성적 한계기업 중 재무상황 매우 취약한 기업을 보면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여신이 55.6%, 정상 분류는 63.7%에 달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켰을 개연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2011년 22.8조원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43.7조원으로 크게 증가. 신용공여액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

2016.4.19.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그런데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아직은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6.4.19.
금통위 회의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우리 경제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에 노력해 나가야

2016.4.2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기자설명회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해 재정의 역할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가능, 국회 동의를 가장 완벽한 형태

2016.5.2.
한은
집행간부회의

기업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발언을 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2016.5.13.
금통위 회의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모색에 힘써 달라

2016.2.기자간담회

(소비라든가 일부 내수지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하는 단편적인 결론은 아직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 소비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6.8.기자간담회

2016.3. 기자간담회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과 구조조정, 이 3중 정책이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6.4. 기자간담회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기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보다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통화정책만이 아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구조조정 정책, 또 경우에 따라서 재정정책이 그만큼 통화정책을 못 따라준 게 사실

2016.6. 기자간담회

지금의 저성장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라든가 그것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점은 일관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 성 식 국회의원

2016.10.04. 한국은행 국정감사

경제성장률(단위:%, %p)

기관	2011년(3.7)			2012년(2.3)			2013년(2.9)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한국은행	4.5	4.0	0.8	3.7	3.0	1.4	2.8	2.8	-0.1
기획재정부	5.0	4.5	1.3	3.7	3.3	1.4	3.0	2.7	0.1
K D I	4.2	4.2	0.5	3.8	3.6	1.5	3.0	2.6	0.2
LG경제연구원	4.1	4.1	0.4	3.4	3.0	1.1	3.4	2.8	0.5
한국경제연구원	4.1	3.9	0.4	3.5	2.6	1.2	2.9	2.3	-

기관	2014년(3.3)			2015년(2.6)			2016년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한국은행	3.8	3.8	0.5	3.4	2.8	0.8	3.0	2.7	
기획재정부	3.9	3.7	0.6	3.8	3.1	1.2	3.1	2.8	
K D I	3.7	3.7	0.4	3.5	3.0	0.9	3.0	2.6	
LG경제연구원	3.7	3.6	0.4	3.4	2.6	0.8	2.5	2.5	
한국경제연구원	3.4	3.4	0.1	3.7	2.7	1.1	2.6	2.3	

소비자물가상승률(단위:%, %p)

기관	2011년(3.7)			2012년(2.3)			2013년(2.9)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한국은행	3.5	4.0	-0.5	3.3	2.7	1.1	2.5	1.7	1.2
기획재정부	3.0	4.0	-1.0	3.2	2.8	1.0	2.7	1.7	1.4
K D I		4.1		3.4	2.6	1.2	2.3	1.8	1.0
LG경제연구원	3.1	4.0	-0.9	3.2	2.8	1.0	2.7	1.4	1.4
한국경제연구원	3.2	4.1	-0.8	3.4	2.6	1.2	2.7	1.8	1.4

기관	2014년(3.3)			2015년(2.6)			2016년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최초	마지막	차이
한국은행	2.3	1.9	1.0	1.9	0.9	1.2	1.4	1.1	
기획재정부	2.3	1.8	1.0	2.0	0.7	1.3	1.5	1.1	
K D I	2.0	1.6	0.7	1.8	0.5	1.1	1.4	1.1	
LG경제연구원	2.1	1.8	0.8	1.4	0.8	0.7	1.2	1.1	
한국경제연구원	2.2	2.0	0.9	1.7	1.0	1.0	1.4	1.2	

주제	작성부서	연도	제목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부문 (11건)	경제연구원	2016년	-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014년	-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2013년	- 고용 및 노동시장지표의 유용성: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국	2015년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2013년	-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 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
		2011년	-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부문 (8건)	조사국	2013년	- 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2012년	-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경제연구원	2015년	-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2014년	- 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3년	-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1년	-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인구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의 성장을 제고효과 비교 분석 -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양극화해 소 (5건)	경제연구원	2013년	- 학력과 전문성에 따른 임금격차 분석
		2012년	-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조사국	2014년	- 가계와 기업소득간 격차확대의 원인 분석
		2013년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재정정책 (4건)	조사국	2016년	-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2013년	-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2012년	-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2011년	- 재정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이후
주요 4대 정책과제 관련
한은 보고서 내역

주제	연도	과제명
일자리 등 고용 (7건)	2016년	통화정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통화정책국, 1,000만원) 고용형태별 노동수요간 상관관계 분석(조사국, 1,000만원)
	2015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지표 개발(경제통계국, 1,000만원)
	2014년	권역별 노동수급 현황 및 시사점(지역협력실, 1,000만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금융안정국, 1,000만원)
	2013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조사국, 1,000만원)
	2012년	단시간 근로증가와 고용 안정성(조사국, 1,000만원)
고령화 등 인구 (3건)	2014년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경제분석(경제통계국, 2,000만원)
	2012년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가격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통화정책국, 1,000만원) 인구구조 및 가계구성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조사국, 1,000만원)
양극화 해소 (1건)	2013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조사국, 1,000만원)
재정정책 (1건)	2012년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가격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통화정책국, 1,000만원)

11년 이후 주요 4대 정책과제 관련 연구용역 발주 내역